

## 2016 대선 이후 미국 대외원조 전망

### 1. 미국 대외원조 정책의 특징

- (미 대외원조의 특징) DAC에서 제시하는 ODA 보다 광의의 정의 적용
  - 개발원조(development aid/assistance)가 아닌, 대외원조(foreign aid/ass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
  -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가 외교·안보적 원조와 농무부를 통한 식량원조를 제공

#### < 미국 대외원조의 형태 >

구분	주요 내용
<b>목적에 따른 분류</b>	
평화와 안보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대응, 마약대응, 국제범죄, 갈등 완화와 중재 등
사회개발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 취약층 보호 등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과 경찰역량, 부정부패 척결, 선거지원 등
경제성장	거시경제성장 제고, 무역 및 투자 제고, 금융부문 활성화, 건설, 민간부문 등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과 난민 및 이민문제 해결 등
<b>예산 계정에 따른 분류</b>	
경제원조	국무부, USAID, 농무부 지원 금액과 국제기구 기여금 등
군사원조	평화유지활동, 군제군사교육 및 훈련, 외국군 군사 금융지원 등
비양허성 원조	수출입은행 및 해외민간투자공사 등의 지원액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유웅조 (2014). 미국 대외원조정책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 (스마트 파워 전략) 오바마 정부는 ① 외교·개발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국무부와 USAID의 통합 활동과 ②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민간간 통합 원조를 추구

### < 미국 대외원조의 정책변화 >

구분	주요 내용
'4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시작으로, 냉전시기의 구소련 체제 경제를 위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대외원조 활용
'70년대 카터 행정부	인권증진이 대외원조 정책에 포함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탈냉전시기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
'00년대 부시 행정부	9·11 테러 이후, 민주주의, 개발, 국방을 국가안보전략 3대 기조로 제시, 국무부 내 대외원조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대테러전략 주요 국가 대상 원조 증가)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유웅조 (2014). 미국 대외원조정책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 2. 트럼프 정부의 대외원조 전망

- (구속성 원조 확대) 미국의 비교우위가 강한 산업분야 중심의 구속성 원조 확대 예상
  -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서는 대외원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과 같은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강하게 제시
  - 대외원조 정책 방향도 철저한 미국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가능성 고조
  - 나아가 시장 자본주의와 기업가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미국 기업 활성화 가능 환경 마련 분야에 대한 원조 확대가 예상됨
- (글로벌 공공재 지원 약화) 향후 미국의 UN 및 기후금융 등 글로벌 공공재를 대상으로 한 원조 지원 감소 예상
  - 트럼프는 UN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we got nothing out of the UN)
  - 또한, 기 승인되었던 기후협약을 취소할 것을 시사한 바 있음

- **(원조 규모의 축소)** 정부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의 원조규모 감소 가능성 높아짐
  - 글로벌 빈곤퇴치와 민주주의 거버넌스 강화보다는 미국 내 인프라 확대 및 재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음
- **(유상원조 도입)** 그동안 순수 증여로 구성되었던 미국의 대외원조는 향후 금융협력 수단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높음
  - '15년 7월, 미국개발센터는 차기 정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개발협력과 자국 상업 이익 연계'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개발금융공사' 설립을 제안
- **(총론)** '공여국 고아(donor orphan)'라 불리던 미국의 독자적 대외원조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미국은 EU 행정체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유럽 국가가 주요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 DAC 체제와는 다소 다른, 국가안보 중심의 대외원조를 지향
  - 향후 트럼프 대선 당선자의 미국 외교정책의 세계 무역과 안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중심 대외원조 기조 유지 확실히
  - 이에 더하여, 경제적 측면의 자국보호주의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에도 적용되어 상업적 원조 측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3. 국제사회 및 우리 개발협력에 대한 영향

- **(국제사회)** 트럼프 정권의 등장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자국보호주의에 입각한 공여국 이익을 부각시키는 트렌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이타주의적 개도국 발전을 강조하던 주요 선진공여국의 '개발원조'는 영미권의 영향을 받아 공여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원원형 대외원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짐
- (EDCF) 주요 공여국의 개도국 내 인프라 산업에 대한 원조경쟁과 금융협력 강화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 주요 지원 대상 지역인 아시아에서의 원조경쟁(일본·중국)이 영국 뿐 아니라 미국의 합세로 인해 더욱 치열해질 것을 대비하여 한국만의 '원원형 스마트 원조 전략' 수립 필요
  - 나아가, 영국 뿐 아니라 미국의 유상원조 도입과 금융협력 강화 기조에 대비하여, EDCF-수은 간 금융협력(개발금융, 혼합금융, PSI 도입, 패키지 금융 등) 강화 노력 필요

작성자

선임연구원 임 소 진

- (개요) '15년 7월, 美 국제개발센터(CGD)\*는 차기 정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수립방향을 제안하는 백서\*\*를 발간
  - \* 개발협력 분야 전문 민간·비영리 싱크탱크
  - \* Practical Proposals on Global Development for the Next US President
- (주요 요지) 최우선 정책기조를 “개발협력과 자국 상업 이익 연계”로 설정하고, 지원규모 및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하여 개발금융공사(USDFC)\* 설립을 제안
  - \*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 &lt; 주 요 내 용 &gt;

- (현황) 개도국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개발재원 수요가 원조자금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FDI)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개도국 시장규모 확대로 美 경제의 對 개도국 의존도는 역대 최고 수준 달성
  - 개발재원 중 ODA 비중이 급감하면서, ODA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제로 역할 변화
- (문제점) 금융협력수단 확대·다변화, 자국 기업 진출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인 타 공여국과 달리, 미국은 증여 위주의 협력 기조를 고수하여 국제 리더십 약화 및 국익 실현 저해 우려
  - \* 중국 주도의 AIIB 설립을 개도국 개발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AIIB 미참여 결정을 정책 실기로 간주
  - 의회, 싱크탱크 등의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활용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주요 분야 별(농촌개발·전력 등) 범정부 경험패키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타국에 비해 규모 열세
- (제안) 개발금융공사(USDFC) 설립을 통한 개도국 민간투자 촉진자금 확대 및 자국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제안
  - 美 DFI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개도국 민간부문에 구축성 금융수단(대출·지분투자·보증 등)을 제공하여 추가 민간자금 동원 및 자국 기업 현지 진출 확대
- (시사점) 순수 증여로 구성된 美 개발협력 이행수단이 금융협력수단 확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개발협력과 자국 상업 이익 간 Win-Win 추구가 지속 강조될 것으로 전망